

日本 對馬島の 繩文遺蹟

李相均(全州大學校)

1. 머리말

對馬島는 북단의 대한해협과 남단의 현해탄 사이에 위치하며, 九州보다는 오히려 부산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형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에는 부적합하며, 해안부에 약간의 평지가 존재한다. 이 평지의 해안부에 마을이 자리하고 도로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연안항로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마도 해역은 대마난류가 흐르며, 연안수가 혼입된 부분은 복잡한 해수를 이룬다. 어항수가 50개소를 넘으며, 연안어업이 비교적 성행하고 있다.

對馬島の 繩文時代 유적은 九州에 비해서는 적다. 주요 유적을 보면 繩文早期를 중심으로 하는 越高遺蹟과 越高尾崎遺蹟, 前期에 해당하는 夫婦石遺蹟, 中期~後期에 이르는 시기에는 西加藤遺蹟, 吉田貝塚, 佐賀貝塚, 누카시遺蹟, 後期~彌生時代に 이르는 시기는 志多留貝塚, 晩期の 住吉平遺蹟 등이 존재한다. 對馬島는 한반도의 남해안과 입지상 근접한 거리에 있는 관계로 한반도와 관련된 유적들이 조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 隆起文土器가 출토되는 越高遺蹟과 櫛文土器가 출토되는 夫婦石遺蹟, 그리고 조개팔찌나 골각기 등이 출토된 佐賀貝塚의 유적 등 한반도의 신석기문화와 관련이 있는 유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유적에 있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였음을 밝혀둔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원문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